

보상 심사 규정·절차 까다로워 타르 피해 어민들 '한숨'

맨손 어업인들 증거 자료 못구해 '발 동동'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보상과 관련 피해 실태 심사 규정과 절차가 까다로워 영광·무안·신안군 등 서남해안 일대 피해 어민들이 한숨을 짓고 있다. <관련기사 3·8·20면>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김·가두리 양식 마을 어장 등 기름 피해 면적은 ▲영광군 백수·염산면 등 834ha ▲신안군 입자·비금도 등 1만7천8ha ▲무안군 해제면 등 1천175ha ▲진도군 3천168ha 등 모두 2만2천185ha에 달한다.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안·신안 등 일대 피해 어민들은 마을 어촌계를 중심으로 '주민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려 증거 채집에 나서는 등 기름 피해 보상문제에 대비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입증 현장 사진 ▲손실이 오염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 ▲사고 이전과 사고기간 동안 소득 비교 자료 등 피해 상황과 규모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김 양식업 20년째인 이대근(52·무안군 해제면)씨는 "양식장 피해 이전 상황을 재증해 놓으려는데 이미 기름에 잠기게 돼 사진찍기가 힘들다"면서 "매출 실적으로도 보상을 해준다지만 무자료 거래를 해 온 많은 영세 어민들에게는 무의미한 얘기"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선박으로 조업을 하는 어민들과 달리 항구에서 막노동용을 하거나 소형 선박에서 일하는 영세 어민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 속을 태우고 있다.
또 갯벌 등 마을어장에서 낚지·조

개·감태 등을 캐서 생계를 유지하는 맨손어업인과 피해 현장 인근 식당이나 민박집 주인 등 간접 피해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의 경우 조업일수나 수입이 일정치 않고 거래내역이나 소득 신고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맨손어업을 50년째 하고 있는 이정식(65·신안군 지도읍)씨는 "낙지 등 맨손어업은 대부분 인근 횡집이나 상가에 내다 파는데, 소득 자료를 입증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나"며 "바다와 갯벌이 재산 전부인 영세 어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무안군 해제면 박상범(52) 어촌계장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보상받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어민들 대부분이 사진 촬영 등 증작업을 벌여 민사소송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인=이종행·조원경기자 galee@



대참사 현장 7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냉동물류센터 '코리아2000'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인일보=전두현 기자

이천 화재 40명 사망·실종

냉동창고 유증기 불꽃 연쇄 폭발 인부 57명 중 17명은 구조·탈출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에서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 7일 밤 현재 인부 22명이 숨졌으며 18명이 건물 지하에 갇힌 채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불이 난 곳이 밀폐된 지하공간으로 내부 열기와 유독가스가 가득 찬 관계로 생사가 불분명한 29명 가운데

상당수도 번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발생=7일 오전 10시45분께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냉동물류센터 '코리아2000' 지하층 기계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폭발당시 건물 지하에서는 인부 57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날 밤까지 2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8명은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다.
나머지 17명은 구조되거나 자력으로 탈출했다. 구조자 가운데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현장에는 냉동설비 34명, 전기 설비 17명, 에어컨 설비 3명 등 작업 인부 54명과 관리자 등 57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지하층과 지상 1-2층 2만8천480㎡와 설비류 등을 태워 6억원(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원인=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기계실에서 유증기가 폭발하며 연이어 10초 간격으로 3번의 연쇄폭발이 있었고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관계로 순식간에 지하 1층 전체로 불길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하 1층은 면적 2만3천338㎡로 밀폐된 공간이라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번지며 희생자들이 대피를 찾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진화 및 구조작업= 불이 나자 도내 전체 소방서의 소방차 등 진화 장비 214대와 소방관 622명, 경찰 2개 중대와 교통지동대 등이 동원돼 진화 및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건물 내부에 보관된 화학물질로 인한 폭발이 계속되면서 진입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내부에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며 유독가스로 뒤덮여 인부들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건물에 갇힌 작업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구조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전남 타르 피해 1천억 넘을 듯

어장 2만 2천185ha ... 수거량 1천118t

충남 태안 원유 유출사고에 따른 타르로 인한 전남 해역의 수산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립 30일부터 타르가 유입된 도내 영광·무안·신안·진도·해남 등 5개 군에 대해 양식장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남을 제외한 4개 군에 걸쳐 717건에 2만 2천185ha의 어장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를 전남지역 한 해 김 생산량(5

천600만속.1천800억원 상당)으로 환산하면 지금까지 타르가 유입된 김 양식어장의 피해액만 2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낚지나 감태, 바지락 등을 채취하는 마을어장도 타르 오염으로 당분간 수확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현재 정확한 집계는 힘든 상황이며, 전남 수산물 유통이나 소비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최소 1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타르의 직접 접촉으로 피해를 당한 김 양식장이 384건 7천829ha에 이르며 낚지·감태·바지락 등 갯벌 정착 수산물을 채취하는 마을어장이 333건에 1만 4천356ha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김 양식장 피해가 신안 6천887ha, 무안 778ha, 영광 164ha 등이며 마을어장의 경우 신안 1만121ha, 진도 3천168ha, 영광 670ha, 무안 397ha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날도 자원봉사자 2천127명 등 총 4천80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178t의 타르를 수거, 이날까지 모두 1천118t의 타르를 수거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인수위 "産銀 민영화·통일부 존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국내 최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투자부문을 대우증권과 묶어 민영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11면>
또 지방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기로 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는 금리와 부동산대출 등을 통해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날 재경부·건교부·통일부·복지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곽승준 기획조정본부 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경부 측과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서로 많은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올해 중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부문을 떼내 대우증권과 합친 뒤 5~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동관 대변인은 "이달 중 지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기로 했다"며 "또 준조세 성격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 및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목돼온 기반시설부담금도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심지에서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응징을 상향조정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당초 폐지를 추진해온 통일부를 존치시키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접수중!
http://marathon.kwangju.co.kr ☎ 062)220-0541

유망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LANEIGE Snow Crush Ice